

불법 당원모집에 칼 빼든 민주당... ‘당원 주권주의’ 박차

강진·화순 군수 당원자격 정치 재선 ‘제동’...무소속 출마 가능성
지방선거 앞두고 권리당원 정화 나서...전남 지방선거 판도 요동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을 받는 현직 전남 기초자치단체장들에 대해 칼을 빼들면서 ‘당원 주권주의’를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이는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졌던 당원 ‘오염’ 행태를 바로 잡아 정청래 당대표가 취임 후 줄곧 주장해온 당원 주권주의 실현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당원 주권주의를 통해 오는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텃밭인 광주와 전남에서 제대로된 ‘당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를 열고 강진원 강진군수에 대한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안을 보고 받았다. 강 군수는 지난달 30일 열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불법 당원 모집 혐의가 인정돼 징계가 의결됐다.

윤리심판원 결정은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의의 별도 의결이나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보고만으로 즉각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민주당은 앞서 구북구 화순군수에 대해서도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구 군수는 징계에 불복, 당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지자체장 모두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사실상 재선 도전에 나섰다. 당 징계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잃게 됐기 때문이다.

강 군수의 경우 재심 청구 가능성이 크지만, 재심이 기각된 구 군수 사례를 돌아봤을 때 징계 철회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두 현직 군수 외에도 전남 서남권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 광역의원 입지자 등도 비슷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불법 당원모집 등 당원 오염에 대한 척

결에 나선 건 지방선거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경선 과정에 당원 참여를 강화했는데 일부 당원이 ‘오염’될 경우 당심을 제대로 경선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남의 경우 특히 ‘민주당=당선’ 공식 속에 권리당원이 당선인을 결정하는 구조인 상황에서 권리당원이 오염됐다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재선을 노리던 전남 지역 현직 군수 두 명이 민주당 옷을 벗게 되면서, 지역 정가는 요동치고 있다.

당장 구 군수와 강 군수 모두 무소속 출마 또는 제3지대 출마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현직 단체장인 만큼 지역 내 조직이나 인지도가 높다는 점에서 무소속 출마 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은 최근 자치단체장급에 대한 의혹 정리를 끝낸 뒤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검증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기 지방선거 입지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정청래 당 대표가 당원 주권주의를 선언한 이후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앞다퉈 권리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었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피로도도 심해졌다는 점에서도 민주당이 불법 당원 모집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역 민심과 괴리되지 않으려면 권리당원 전수조사 등을 통해 불법 당원 모집이나 당비 대납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후보 자격 박탈은 물론 출당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 민심의 괴리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상공회의소, 병오년 힘차게 출발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의 2026년도 신년인사회가 6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광주지역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경제계 대표, 기관단체장이 함께 모여 새해 포부와 새출발을 다짐하며 건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노후주택 에너지 낭비 막는다... ‘광주형 그린리모델링’ 기준 마련

벽체 단열 보강·고효율 난방기기 교체도 진행

전체 건축물의 절반 이상이 주거용인 광주시의 특성을 반영해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광주형 그린리모델링’의 표준 모델이 마련됐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 없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리모델링 공사에 과학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됨에 따라 지역 건축물의 탄소 감축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광주기후에너지전환원이 발표한 ‘광주시 주거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기준건물 구축연구(II)’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광주시의 주거용 건축물은 8만8777동으로 전체 건축물(13만6133동)의 65.2%를 차지한다.

연면적으로 따져도 전체의 54.4%에 달해 주거 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없이는 ‘2045 탄소중립’ 달성이 요원한 실정이다.

연구진은 광주시 주거 건물의 데이터를 분석해

등유보일러 사용 단독주택, 도시가스보일러 사용 단독주택, 저층형 공동주택(4층 이하), 고층형 공동주택(5층 이상) 등 4가지 ‘기준건물(Standard Building)’ 모델을 도출했다.

이 모델을 바탕으로 에너지 성능을 평가한 결과 단독주택의 에너지 효율 등급은 3~4등급에 머물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층형 공동주택은 2등급, 고층형 공동주택은 1등급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했다. 특히 등유보일러를 쓰는 단독주택은 도시가스를 쓰는 곳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월등히 많아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노후 주택을 ‘녹색건축물’(에너지 소요량 30% 이상 절감)로 바꾸기 위한 최적의 기술 조합도 제시했다.

단독주택과 저층형 공동주택은 ‘벽체 단열 보강’과 ‘고효율 난방기기 교체’를 함께 진행할 때 비

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가장 컸다.

연구진은 “단열 공사가 1차 에너지 소요량을 줄이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장호 교체는 비용 대비 효율이 다소 낮지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필수적이고 전동 교체는 투자비 회수가 빨라 경제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담고 있다. 현재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단순히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건물’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맞춰져 있어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진짜 약자’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단순히 건물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원하기보다는 폭염 취약 지역이나 에너지 빈곤율이 높은 지역을 찾아내 지원해야 한다”며 “노후 주택이 밀집한 구도심 지역은 개별 지원보다 ‘블록 단위’로 묶어 통째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홍기월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오해 벗고 의정활동 전념”

의정보고서 배포 문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홍기월(동구1) 광주시의원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동부경찰은 홍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해 12

월 2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일각에서는 홍 의원이 지난해 7월 배포한 의정보고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보고서 제작 경위와 배포 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폈으나, 불법 선거운동을 위한 고의성이 뚜렷한 목적이 없었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홍 의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의정 활동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모든 오해와 짐을 벗어던진 만큼,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동구의 도약과 광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조례” 제정을 주도로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3관왕에 오르 고, 장기간 표류하던 지역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반복되는 건설현장 참사...근본 대책 마련해야”

강은미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리한 공기 단축 관행과 안전 관리 부실 등 건설 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공화정이아프크 참사일이 다가온다”며 “태

안화력 김용균 노동자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이끌어냈듯, 광주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안전 입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강 위원장은 “시민분향소 설치 등 후속 조치가 지연된 점은 유감이며, 수사 결과와 별개로 행정 당국이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강은미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지난해 연발에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반복되는 지역 내 건설 현장 참사의 사슬을 끊기 위해 근본적인 처방과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6일 광주지역 기자들을 만나 “전문가 진단 결과 해당 도서관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며 “시민 개방 전이라 인명 피해는 피했지만, 관공 공사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시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오는 8일 전일 발의245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토론회’를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www.kwangshin.ac.kr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202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신학과(Ph.D.)	○
		성경연구학과(Th.D.)	○
		사회복지학과(D.S.W.)	○
일반대학원	박사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심리치열융합학과(D.Psy.)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가족상담정서년화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재활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한국어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
		실용음악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일반편입 (3학년)	정원외 학사편입 (3학년)
인문	신학과	○○	○
	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부	○○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6. 1. 5.(월) ~ 19.(월)

·전형일: 2026. 1. 22.(목) 오후 2시

원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